

# '0%대 물가' 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 2021년 1월 광주 소비자 물가 동향



광주 소비자물가 0.6%...신선식품 15.1%↑ 상승률 전국 최고 설명절 앞두고 양파 83%·사과 52.8%·돼지고기 19.3% 상승 전기요금 인하·공업제품 하락 등 영향...“체감 물가와 괴리 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광주는 석 달째, 전남은 넉 달째 '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은 광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는 0.6%, 전남은 0.8% 상승했다. 전국 평균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0.6% 올랐는데, 이 같은 '0%대' 상승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 물가 사정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지난해 11월(0.1%), 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6%)까지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 전남도 10월(0.4%), 11월(0.6%), 12월(0.6%), 올해 1월(0.8%) 등 4개월째 1%도 되지 않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측은 전기요금 인하 등 정책적 요인과 공업제품 하락이 저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업제품 가격은 1년 전보다 광주는 0.7%, 전남은 1.0% 내렸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광주 5.4%, 전남 4.1% 떨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장보기 겁날 정도'의 시중 가격과 괴리가 크다.

광주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 7.9%, 12월 11.9%, 올해 1월 13.1% 등의 상승률을 보이며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 달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전국 평균(10.0%)을 훌쩍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잇따른 기상악화와 연초 강타한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광주지역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이어 경남(12.0%), 부산(11.1%), 경북(11.0%), 경기(10.8%), 충북·전북(각 10.7%), 충남(10.5%), 대구·대전(각 10.3%), 울산(10.1%) 순으로 높았다. 전남 상승률은 8.7%로, 서울·강원권과 같았고 인천(7.3%), 제주(8.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광주는 특히 신선식품 물가가 15.1% 경종 뛰었다. 전남은 1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위주로 상승률을 보면 양파가 1년 전보다 광주는 83.0%, 전남은 65.2% 크게 올랐다.

파 가격도 50%대 상승했고, 감자 값은 광주 27.3%, 전남 43.7% 올랐다. 설명절을 앞두고 1월 과일 가격도 두 자릿수 올랐다. ▲사과(광주 52.8%·전남 45.4%) ▲배(광주 33.6%·전남 35.9%) ▲감(광주 57.4%·전남 23.8%)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바나나 가격은 광주에선 24.3% 오르고 전남은 5.5%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늘어난 집밥 수요에 돼지고기 가격은 광주·전남 모두 19% 넘게 올랐고, 국산 쇠고기 값도 10% 가까이 상승했다. 갈치(광주 26.9%·전남 5.0%), 고등어(16.0%·전남 4.5%) 등 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다. 달걀 가격은 광주 17.0%, 전남 13.2% 올랐는데 7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인 시중 상황과 격차가 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반려견과 커플룩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3층 '앤클라인' 매장에서 반려견과 한 쌍으로 차려 입을 수 있는 겨울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운동의 하나로, 펫(Pet)라인 의류는 버려진 원단으로 만들어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유통가에 막오른 '00데이' 판촉전

두꺼비 캐릭터 굿즈 등 다양

이른바 '벨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은 기념일을 앞두고 유통가가 각종 판촉 행사를 이달 초부터 벌인다. 광주 4개 롯데마트는 오는 14일까지 각 매장에서 초콜릿과 사탕 200여 종에 대한 다양한 판촉전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엘포인트를 적립하면 할인하거나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할인 기획전이 진행된다. 롯데제과는 행사 상품을 당일 2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제과를 제외한 벨런타인데이 행사 상품들도 당일 2만원 이상 구매 때 롯데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펼치며 제과업계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이마트24는 화이트진로 '두꺼비' 캐릭터를 내세워 굿즈(상품) 2종 판매에 나선다. 14일까지 행사 카드로 사면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도 63종에 달하는 행사 상품을 사면 두꺼비 굿즈를 증정하는 스탬프(도장) 모으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용 도장은 상품 결제 때 모바일 앱 통합바코드를 읽으면 상품 1개당 1개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이 행사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마트24는 초콜릿, 젤리, 사탕 행사 상품을 지난해 2월보다 40% 늘린 130여 종을 선정했다. 간편결제를 이용해 1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13일까지 진행한다. 14일까지는 기획상품 총 61종을 5000원 이상 행사카드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30% 할인 판매를 펼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설 선물, 건강식품·통조림·와인에 지갑 연다

광주 이마트 사전예약 조사

광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설 선물로 건강 기능식품, 통조림, 와인 등을 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4개 이마트가 설 선물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 12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40일 동안 선물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1년 전보다 72.3%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 매출은 전년보다 41.9% 증가하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승 효과를 반영했다. 10만원 이상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15.4%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홍·인삼 제품, 통조림, 와인 매출이 최대 95% 이상 증가했다.

홍·인삼 제품은 코로나19 사태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졌다. 와인은 '홀술' '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선물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 동안 와인 매출은 전년보다 43.7% 올랐다. 이외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냉장한우 매출이 전년보다 53.1% 증가했다. 이는 한우 전체 매출 증가율 45%를 웃돈 수치다. 이마트 관계자는 “냉장한우 선물세트가 전체 한우 선물세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평년의 경우 30% 수준이지만, 설 사전예약 기간에는 이 비중이 38.4%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설 선물 본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카드로 사면 최대 40% 할인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별도 50만원까지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백희준 기자 bhj@

## 개성있는 나만의 입욕제로 '집콕' 즐기세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21일까지 입욕제 기획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콕족'을 위한 목욕용품 행사가 한창이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인기 브랜드 '배스 프로젝트'의 입욕제를 오는 21일까지 1층 특설매장에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욕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 명절 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물세트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키트' 등도 있다.

롯데쇼핑의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롭스'는 4일까지 롯데제과 캐릭터 '말랑카우'를 활용한 세안용품 행사를 벌인다. 롱스에 따르면 이곳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두 달 동안(지난해 11월28일~1월27일) 생활용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롱스는 이달 말까지 세안·목욕용품과 보습제를 10~46% 할인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